aT·인터넷진흥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지난 조사보다 한계단 상승…문화예술위원회 등 3곳 '보통'
한전KPS·KDN 대상 제외…한전·콘진원·농어촌공사 등 '미흡'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202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년보다 한 계단 오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전력을 포함한 4개 기관이 전년과 같은 '미흡' 기관에 선정됐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년 '보통'보다 성적이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올해 조사 대상 공공기관은 245곳이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 25곳과 준정부기관 92곳, 기타 공공기관 128곳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41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본원을 둔 두 기관은 지난 조사에서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aT 관계자는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선 모든 부문 목표점수를 달성하면서 전년대비 2점 상승한 94.7점을 받았다"며 "지난해 국민제안함과 국민참여혁신단 등을 운영하며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T는 지난해 장병 먹거리 기본권을 높이고자 군 급식에 학교급식입찰시스템을 도입하고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에 전용선복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이번에 '보통' 등급을 받은 96곳 중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곳이 포함됐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전년 '미흡'에서 한 계단 오르고 나머지 두 곳은 동일했다.

조사 대상 사업의 50% 미만에서 목표치를 달성하며 달성도 점수 0.75를 밑돈 '미흡' 기관은 이번에 104개 꼽혔다.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전과 사학연금, 전력거래소, 콘텐츠진흥원은 전년에도 '미흡' 등급을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전년에 '보통'이었지만 이번에 '미흡' 등급으로 주저앉았다.

한편 모회사가 한전인 한전KPS와 한전KDN 등은 고객의 특수성을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전화·현장 조사로 총 13만4362개 표본을 전화·현장조사했다.

정부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미흡 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등 혁신도시 3곳 우수 공시기관 선정

방송통신진흥원·문화예술위원회 다음 연도 공시점검 면제 등 혜택

2021년 우수 공시 공공기관에 한전KDN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48개 공공기관의 2021년 경영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35곳이 우수 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기관주의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2곳이었고, 불성실공시 기관은 없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점검 결과 우수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전KDN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35개로 전년 대비 20개 증가했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초과한 기관주의 대상 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수자원환경산업진흥 등 2곳이었다. 이는 전년(6곳) 대비 4곳 감소한 수준이다.

이외 최근 공시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공시향상기관으로는 21개 기관이 선정됐고, 연간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시행하고, 허위 공시나 공시오류, 지연공시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횟수를 연간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회사원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점검단을 운영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아울러 벌점이 최근 2·3년간 50% 이상 감소한 기관은 이번에 신설된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해 공시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타 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주무 부처가 시행하는 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우수 공시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공시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 점검의 경우 기관 담당자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율 검증 프로그램을 시스템 내부에 탑재해 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시 항목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유도한다.

우수 공시기관에 선정된 한전KDN 관계자는 "2017년 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투명 경영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성실 공시로 지속적 긍정평가 유지와 함께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공기업의 인지도 제고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KISA, 중기 랜섬웨어 피해 예방 돕는다

데이터 백업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데이터 금고 사업' 지원을 받을 중소기업을 다음달 26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해킹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로 기업의 업무가 중단되고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것을 막으려면 데이터 백업 등 선제적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

진흥원은 이에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5000곳에 데이터 백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백업 지원에 4000개사를, 백업 서버 구축 지원에 1000개사를 모집한다.

클라우드 백업은 최소 100기가바이트(GB) 이상을 지원하며, 보안 관제 등 IT 기반시설과 유지보수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진흥원은 밝혔다.

기업당 서비스 공급가액 기준 90%, 최대 9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준다.

백업 서버 구축은 10테라바이트(TB)부터 지원하며 고용량 데이터 백업이 필요하고 자체 유지보수 인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맞는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진흥원은 기업당 서비스 공급가액 기준 80%, 최대 14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주고 기본적인 초기 보안 설정을 포함한 방문 설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중소기업이면 어느 곳이든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금고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평동농협, 벼 육묘장 준공

연간 3만장 생산 전망

광주 평동농협이 3041㎡(920평) 규모 벼 자동화 육묘장을 준공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26일 광주시 광산구 연산동 평동농협 사업장에 벼 육묘장 시설을 준공하고 기념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기념 행사에는 김익찬 조합장과 김익주 광주시의원,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국강현 광산구의원과 지역본부, 평동농협 관계자,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완공한 벼 육묘시설은 3041㎡ 규모로, 총 7억원 사업비가 투입됐다. 사업비 가운데 광주시가 30%, 광산구가 30%를 부담했다.

이 시설은 연간 3만장의 벼 육묘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된 육묘는 지역 수도작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

모자로 자외선 차단하세요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이 9층 행사장에서 봄철 자외선을 피하고 멋을 살리기 좋은 다양한 모자를 써보고 있다. 모자 모음전은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